

저자 (Authors)	한정호 Han, Joung-ho
출처 (Source)	신라문화 44 , 2014.08, 43-62 (20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4 , 2014.08, 43-62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7021
APA Style	한정호 (2014). 황룡사 迦葉佛宴坐石考. 신라문화, 44, 43-6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7 15: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황룡사 迦葉佛宴坐石 考

한 정 호*

<目 次>

- | | |
|------------------------|----------------|
| I. 머리 말 | |
| II. 황룡사의 佛殿과 가섭불연좌석 | IV. 가섭불연좌석의 실체 |
| III. 가섭불연좌석과 목탑지의 方形大石 | V. 맺 음 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삼국유사』 탑상편의 첫 장에 등장하는 迦葉佛宴坐石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제기됐던 황룡사 건축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섭불연좌석을 둘러싼 건축과 관련하여 황룡사는 발굴조사를 통해 일탑삼금당식 가람으로 밝혀졌다. 『삼국유사』에는 가섭불연좌석이 佛殿의 後面에 위치한다고 소재를 밝혔는데, 연좌석이 위치했던 불전은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수 내역을 분석하여 동금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황룡사 중금당지의 동서에 배치된 건물지를 금당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동안 가섭불연좌석 또는 찰주받침으로 추정되던 목탑지의 방형대석은 『삼국유사』의 기록과 구층목탑 중수기록 및 사리장엄구 분석을 통해 고려 고종 16년(1238) 몽고의 전화로 인해목탑이 전소된 이후 사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鎮護石으로 판단하였다.

최근 황룡사지 장육삼존상 대석과 목탑지 심초석이 지석묘를 가공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분황사 일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지석묘 하부 유구는 황룡사지 일대에 청동기시대 지석묘군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삼국유사』에 묘사된 가섭불연좌석의 형태는 영락없이 선돌(立石)에 대한 묘사이다. 따라서 황룡사가 창건되기 이전부터 聖地의 징표가 되었던 가섭불연좌석의 실체는 바로 선돌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황룡사를 비롯한 신라의 칠처가람에 대해 고대신앙의 신성지역에 불교사원이 건립된 것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영문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ubstance of Gaseopbul Yeonjwaseok, which appeared in the first chapter of Tapsang in 『Samgukyusa』 and solves various problems that were suggested about

*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construction of Hwangryongsa.

First, on the construction regarding Gaseopbul Yeonjwaseok,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found out that Hwangryongsa was a Buddhist temple with one pagoda and three main buildings of the temple. In 『Samgukyusa』, it was written that Gaseopbul Yeonjwaseok was located at the back of the Buddhist temple. However, restoration details found by investigation identified that Yeonjwaseok was in the eastern side of the main building of the temple. This fact can become an evidence that dispels negative perspectives on calling building sites located in the east and west of central main buildings of Hwangryongsa main buildings of the temple. In addition, records from 『Samgukyusa』, restoration records of 9-story wooden pagoda and Sari Reliquary analysis identified that the square pedestal of wooden pagoda site that were assumed to be either Gaseopbul Yeonjwaseok or a base of central pillar was Jinhoseok(鎮護石), which was set up to protect Sari case after the wooden pagoda was burnt due to attack from Mongolia in the 16th year(1238) of King Gojong reign in Goryeo dynasty.

Recently, it was identified that the stone pedestals for the Buddha Triad on Hwangryongsa site and the central foundation stone on the wooden pagoda site were made from a dolmen. Remains under the dolmen found by excavation in Bunhwangsa district showed that there were dolmens of the Bronze Age in Hwangryongsa area. Judging by these circumstances, the forms of Gaseopbul Yeonjwaseok in 『Samgukyusa』 must be the description of a standing stone(立石). Therefore, the substance of Gaseopbul Yeonjwaseok, which was the symbol of the sacred place even before Hwangryongsa was constructed, is a standing stone. Such interpretation supports the existing point of view that seven Buddhist temples of Shilla dynasty including Hwangryongsa were constructed in the sacred region of ancient religions.

[주제어] 황룡사(Hwangryongsa), 가섭불연좌석(Gaseopbul Yeonjwaseok), 선돌(standing stone), 금당(main building of a temple), 칠처가람(seven Buddhist temples)

I. 머리말

『三國遺事』는 우리나라 고대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미술 연구에 있어 가장 귀중한 문헌자료이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는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등 5권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塔像篇은 불교미술의 핵심인 불탑과 불상의 유래를 중심으로, 佛具와 건축 등 고대 불교미술의 대표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고대 불교미술 연구에 가장 많이

인용된다. 모두 30개의 조목으로 구성된 탑상편의 주제는 대부분 불교 신앙과 관련된 불교 조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첫 장에 수록된 迦葉佛宴坐石條는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 조형물과는 거리가 있는 생소한 대상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가섭불연좌석조는 前佛 또는 전불가람에 관한 기록으로 신라 불국토설을 강조하기 때문에 興法篇에 편성되는 것이 성격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있다.¹⁾

필자가 가섭불연좌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학부시절 수업시간에 가섭불연좌석에 관한 논문을 강독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강독했던 논문의 내용은 가섭불연좌석의 현존여부에 의문을 품고, 현재 황룡사 목탑지 중앙의 심초석을 덮고 있는 방형대석을 가섭불연좌석으로 추정하는 논문이었다. 분량이 4페이지 정도에 불과한 짧은 글이었지만 논지의 타당성을 떠나 학부생인 나에게 발상을 전환하고 대상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인상 깊은 논문이었다.

그 뒤로부터 황룡사를 찾을 때마다 목탑지의 방형대석이 과연 가섭불연좌석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피게 되었고, 나아가 연좌석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그러는 동안 목탑지의 방형대석이 가섭불연좌석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연좌석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가섭불연좌석은 전불시 칠처가람의 징표로, 황룡사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신성시되어온 돌이기 때문에 가섭불연좌석의 실체를 파악해야만 황룡사와 신라 초기가람의 입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황룡사의 佛殿과 가섭불연좌석

황룡사는 신라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7곳의 사찰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의 구체적인 물증으로 과거칠불 중에 여섯 번째 부처인 迦葉佛이 앉아서 설법했다는 연좌석을 지목했다. 이 가섭불연좌석에 대해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玉龍集과 慈藏傳, 그리고 諸家傳記에 모두 이렇게 기록되었다. “신라 月城의 동쪽, 용궁龍宮의 남쪽에 迦葉佛宴坐石이 있다. 그 곳은 곧 前佛 때의 절터다.

1) 장충식, 「삼국유사 탑상편 체제의 검토」, 『동악미술사학』2, 동악미술사학회, 2001, pp. 13~14.

지금 황룡사 터는 곧 칠치가람 가운데 하나이다. 국사를 살펴보면, 진흥왕 즉위 14년 開國 3년 癸酉 2월에 월성의 동쪽에 새로 궁을 지었는데, 그 곳에 황룡이 나타났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황룡사로 고쳐지었다. ①연좌석은 佛殿 뒤에 있었다. 일찍이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②돌 높이는 5·6척정도 되었지만 둘레는 3 肘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③깃대처럼 서있고 위는 평평하였다. 진흥왕이 ④절을 창건한 이래 거듭 화재를 겪어서 돌에 금이 가고 벌어졌는데, 절의 스님이 여기에 쇠를 붙여 보호했다... 이윽고 ⑤몽고의 병란이 있을 후 불전과 탑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이 돌도 흠속에 묻혀 겨우 지면과 같이 평평해졌다.²⁾

위의 기록은 가섭불연좌석에 대한 기록이지만 간접적으로 황룡사의 佛殿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알려준다. 위의 기록 가운데 ①은 연좌석이 불전의 뒤에 위치한다고 소재를 밝히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저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기록에서 지칭하는 불전이 황룡사에 존재했던 여러 불전 중에 어느 불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흔히 황룡사의 불전이라 하면 장육존상이 봉안되었던 금당을 연상하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황룡사는 일탑삼금당식 가람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단순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황룡사의 세 금당 중에 중앙의 금당은 장육존상에 대한 풍부한 문헌자료와 금당지에 불상대석이 남아있어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중금당의 동서에 병립된 두 건물은 현존하는 내부의 시설물이나 문헌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장육존상이 봉안되었던 중금당지의 동서에 배치된 건물지의 성격에 대해, 건물지마다 기단 구축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금당으로 지칭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³⁾ 이러한 지적은 황룡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일탑삼금당식 가람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삼금당식 가람으로 분류되는 절터의 금당 동서에 배치된 건물지의 성격을 재론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사실 삼금당식 가람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물지의 배치형식에 의해 분류

2) “玉龍集及慈藏傳與諸家傳紀皆云 新羅月城東龍宮南 有迦葉佛宴坐石 其地卽前佛時伽藍之墟也. 今皇龍寺之地卽七伽藍之一也. 按國史 眞興王卽位十四 開國三年癸酉二月 築新宮於月城東 有皇龍現其地. 王疑之改爲皇龍寺. 宴坐石在佛殿後面 嘗一謁焉 石之高可五六尺來 圍僅三肘幢立而平頂 眞興創寺已來 再經災火 石有拆裂處 寺僧貼鐵爲護... 旣而西山大兵已後 殿塔煨燼而此石亦夷沒 而僅與地平矣”(『三國遺事』卷3, 塔像, 迦葉佛宴坐石條).

3) 조유전, 「皇龍寺 三金堂考」, 『석당논총』20, 1994, pp. 156~161.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굴된 삼금당식 가람 가운데 동서 건물지가 불상을 봉안하는 불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비교적 문헌자료가 풍부한 황룡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동서금당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서 건물지를 각종 행사를 위한 부속 건물로 보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섭불연좌석이 위치했던 불전이 황룡사의 중금당이 아닌 동서 금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삼금당식 가람의 이해에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가섭불연좌석이 위치했던 불전이 황룡사의 세 금당 가운데 어느 금당을 지칭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佛殿’이라는 용어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사료에서 고대 불상이나 여러 존상을 봉안하여 사원건축의 중심을 차지하는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는 金堂, 佛殿, 法堂 등의 용례가 보인다.⁴⁾ 먼저 『삼국유사』의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장육삼존상의 봉안처와 관련된 기록에서는 金堂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여 가섭불연좌석과 연관된 불전과 구별된다.⁵⁾ 이러한 차이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원전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지만 중금당 동서에 배치된 건물의 성격이 금당이라면 중금당과 구별하기 위해 금당과 불전이라는 용어로 달리 사용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발굴조사를 통해 삼금당식 가람으로 밝혀진 분황사와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에 千手觀音 벽화가 그려진 건물을 ‘左殿’으로 표기한 사례가 있다.⁶⁾ 여기에서 말하는 분황사의 좌전은 곧 ‘左佛殿’의 약칭으로 생각되며 황룡사와 마찬가지로 중금당과 구별하여 東金堂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창건 이후 거듭 화재를 겪어서 연좌석에 금이 가고 멀어졌다”는 ④의 기록은 가섭불연좌석이 있었던 불전을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거듭 화재를 겪었다(再經災火)”는 것은 연좌석과 연계된 건물이 두 차례 이상 화재를 겪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몽고전란 이전까지 장육존상을 안전하게 유지했던 중금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실은 발굴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금당지 발굴에서는 별다른 중건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좌석과 연계된 건물은 동금당과 서금당 중에 하나로 범위가 축소된다. 그리고 이 두 금당지 가운데 거듭된 화재의 흔적이 확인되는 건

4) 이강근,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12, 한국미술사학회, 1998, pp. 60~64.

5) “...寺中記云 眞平王五年甲辰 金堂造成...”(『三國遺事』卷3, 塔像, 皇龍寺丈六條)

6) “...一日母抱兒 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 遂得明...”(『三國遺事』卷3, 塔像,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條)

물지가 바로 연좌석이 있었던 금당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황룡사지 발굴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서금당지는 초창 이후 단 한 번의 중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것에 비해 동금당지에서는 초창 후 두 번에 걸친 중건의 흔적이 확인되었다.⁷⁾ 결과적으로 동금당지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두 번의 중건에 의한 기단부의 변화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거듭된 화재의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가섭불연좌석과 연계된 불전은 황룡사의 세 금당 가운데 동금당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⁸⁾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섭불연좌석과 연계된 불전이 동금당이라는 사실은 황룡사 중금당지의 동서에 배치된 건물지를 금당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황룡사의 삼금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황룡사와 관련된 사료로는 인용되지 않았던 <佛國寺古今創記>의 다음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靑泰 3년 丙申(936)에 三韓을 통합하였고 6년 기해에 처음으로 고려국호를 쓰기 시작했다. (경주의 신라 멸망후의 邑號는 徐羅이다. 天福 5년(940)에 安東都護府를 慶州司都護府로 고쳤다. 顯德 원년 甲寅(954)에 황룡사 구층탑과 左右金堂, 장육상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統和 12년 甲午(994)에 安東大都護를 東京留守官으로 고치다. 22년 甲辰(1004)에 황룡사 구층탑과 장육불이 이루어졌다. 26년 경주를 樂浪郡으로 고치다. 壽昌 원년 乙亥(1095)에 황룡사에 벼락이 떨어져 소실되다. 무술(1238) 10월 11일에 황룡사가 몽고인들에 의해 소실되었다. 慶州大守 尙書)⁹⁾

위에 제시한 <불국사고금창기>의 기록 가운데 황룡사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료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顯德 원년(954)에 황룡사 구층탑과 左右金堂과 장육상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기록은

7) 『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문화재관리국, 1984, pp. 66~78.

8) 한정호, 「황룡사의 재조명을 위한 試論」, 『겨레문화』11, 한국겨레문화연구원, 1997, pp. 14~17;

양은경, 「황룡사지 동서 금당지와 강당지의 불상봉안 여부와 존상명」, 『신라사학보』23, 신라사학회, 2011, pp. 346~348.

9) “靑泰三年丙申統合三韓 六年己亥始行高麗國號 (慶州新羅滅後邑號徐羅 天福五年改爲安東都護府邑號慶州司都護府 顯德元年甲寅皇龍寺九層塔左右金堂丈六佛天火燒失 統和十二年甲午安東大都護開爲東京留守官 二十二年甲辰皇龍寺九層塔丈六佛成 二十六年慶州改樂浪郡 壽昌元年乙亥皇龍寺霹靂火燒失 戊戌十月十一日皇龍寺乙蒙古人等亦付燒失慶州大守尙書)”(<佛國寺古今創記>, 『佛國寺誌』, 아세아문화사, 1983, p. 65).

사실여부를 떠나 황룡사 중금당지 좌우의 건물지가 금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자료가 된다. 사실 황룡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가람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까지 황룡사의 가람배치가 일탑삼금당식 가람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道光 2년(1822)에 편찬된 <불국사고금창기>에 황룡사 左右金堂이 등장한다는 것은 황룡사 중금당지의 동서에 배치된 건물지가 금당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Ⅲ. 가섭불연좌석과 목탑지의 方形大石

『삼국유사』에 기록된 가섭불연좌석의 행방에 대해서는 황룡사 목탑지의 심초석 위에 사리공을 덮고 있는 방형대석을 가섭불연좌석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¹⁰⁾(도 1) 이 주장의 근거는 앞장에서 제시한 『삼국유사』가섭불연좌석조의 기록에서 가섭불연좌석의 형태를 묘사한 ‘幢立而平頂’이라는 글귀이다. 이 문단에 대한 해석은 보통 앞에서 인용한 ③의 ‘깃대처럼 서있고 위는 평평하다.’ 또는 ‘우뚝 서있고 위가 평평하다.’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이 주장에서는 ‘깃대(幢)가 서있고 위는 평평하다.’로 풀이하여 방형대석의 구조와 결부시켰다. 즉, 기존에 사리공으로 추정되던 방형대석 상부 중앙의 작은 圓孔을 석당의 축을 끼워 고정하는 장치로 해석하여, 기록에 묘사된 가섭불연좌석과의 형태가 일치함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불전 後面에 위치했던 가섭불연좌석이 목탑지 중앙으로 옮겨진 원인에 대해서는 몽고의 전란으로 인해 금당과 목탑이 전소된 이후, 그 폐허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가섭불연좌석과 구층탑 사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섭불연좌석을 옮겨 사리장치의 鎮護石으로 삼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리공의 정밀조사 과정에서 대석과는 별도로 직경 90cm의 원형 기둥이 놓여있던 柱痕이 확인된 사실¹¹⁾과 매월당 김시습의 『四遊錄』을 비롯한 『東國輿地勝覽』, 『東京雜記』 등에 가섭불연좌석이 황룡사에 있다는 조선시대의 문헌 자료 특히, 김시습의 시에 묘사된 형태가 목탑지 방형대석의 모습과 일치하여 논지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몽고전란으로 인한 피해복구 과정에서 사리장치를 보호

10) 황수영, 「신라 황룡사의 가섭불연좌석」, 『불교와 미술』, 열화당, 1980; 동저, 『황수영전집 5』, 해안출판사, pp. 176~179 재수록.

11) 『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1』, 문화재관리국, 1984, p. 308.

하기 위해 가섭불연좌석이 옮겨졌다는 주장과 달리 『삼국유사』의 찬자 일연이 가섭불연좌석을 목격했을 당시 연좌석이 땅에 묻혀있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된다. 앞에서 제시한 『삼국유사』가섭불연좌석조의 기록 ④에서 ‘몽고의 병란이 있는 후 불전과 탑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이 돌도 흙속에 묻혀 겨우 지면과 같이 평평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섭불연좌석조의 말미에는 ‘석가세존으로부터 내려와 지금의 至元 18년 辛巳까지 벌써 2,230년인 것을 보면...’¹²⁾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至元 18년(1281)까지도 여전히 가섭불연좌석은 흙속에 묻혀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몽고병란으로 황룡사의 舍燒 시기가 고려 고종 25년 1238년의 일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가섭불연좌석은 황룡사가 전소된 이후 빨라야 43년 뒤에 목탑지로 옮겨졌다는 말이 된다. 이는 몽고전란으로 인한 폐허를 수습하는 시기와도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호석이 없었던 40여 년 동안 목탑지의 사리장치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가섭불연좌석조의 기록 ②에서 일연이 목격했던 가섭불연좌석의 크기는 높이가 5~6尺이고, 둘레는 3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肘는 다소 생소한 단위인데 고대 중국의 길이의 관용단위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서 유래된 단위로 둘레를 표기할 때 적합한 단위이다. 뺨으로 두 뺨이 1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2척이 1주가 되며, 『度地論』에도 1주는 2척이고 4주는 1弓 이라 밝히고 있다.¹³⁾ 따라서 가섭불연좌석의 크기는 높이 약 150~180cm이고, 둘레는 약 180cm로 환산된다. 이와 비교하여 목탑지 심초석 위에 놓여있는 방형대석의 크기는 높이가 약 100cm이고, 둘레는 약 575cm로, 일연이 목격했던 가섭불연좌석의 크기와 큰 차이를 보여 현존하는 방형대석을 가섭불연좌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김시습의 시에 묘사된 가섭불연좌석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헌자료에 언급된 가섭불연좌석은 연좌석의 실체가 아니라 목탑지의 방형대석을 가섭불연좌석으로 오인한 기록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목탑지의 방형대석은 황룡사 구층목탑 창건 당시부터 사리공을 덮는 蓋石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 근거로는 대석과 심초석을 2개의 철축으로 고정하고, 주위 습기를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마련한 점과 대석의 형태가 사다리꼴이라는 구조적인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석 上面에 마련된 직경 17cm, 깊이 18cm 되는 원형구멍은 심주에 축을 마련하여 고정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하

12) “... 自釋尊下至于今至元十八年辛巳歲 已得二千二百三十矣 ...”(『三國遺事』卷3, 塔像, 迦葉佛宴坐石條).

13) 小泉袞裳勝, 『單位の歷史辭典』, 柏書房, 1990, p. 171.

였으며, 상면이 경사지게 깨어진 것은 구층목탑이 화재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았다.¹⁴⁾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리공의 정밀조사 과정에서 대석과는 별도로 심초석 위에 직경 90cm의 원형 기둥이 놓여있던 柱痕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방형대석의 북측 바닥과 연결한 심초석 상면에는 원형으로 이어지는 緣痕이 남아있다. 이 녹흔은 비록 시기적인 차이는 크지만 일본 도다이지(東大寺) 대불전 기둥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구층목탑 찰주의 밑등을 들렀던 철테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현재 심초석 상면에 남아있는 원형의 녹흔은 그 윤곽을 따라 복원할 경우 직경이 약 147cm가 된다. 그리고 그 범위는 방형대석 밖으로 노출된 남북 심초석의 원공과 대석의 내부에 있는 두 개의 원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 흔적에 맞춰 구층목탑 찰주를 복원할 경우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4개의 원공은 원래 찰주와 심초석을 결구하기 위해 철정을 박아 고정했던 시설로 추정할 수 있다.¹⁵⁾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목탑지의 방형대석이 황룡사 구층목탑 창건 당시 사리공을 보호하고 찰주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시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구층목탑의 중수 당시 또는 몽고전란으로 인해 구층목탑이 전소된 이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에 기록된 황룡사 구층목탑 창건과 중수내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삼국유사』 황룡사 9층목탑 중수기록

중 수	연 대	원 전 내 용
창 건	신라 선덕왕 貞觀 19년(645)	…善德王代貞觀十九年乙巳塔初成…
1차 중수	신라 성덕왕 庚申(720)	…三十二孝昭王即位七年 聖曆元年戊戌六月 霹靂 [寺中古記云聖德王代 誤也. 聖德王代 無戊戌.] 第三十三聖德王代庚申歲 重成…
2차 중수	신라 경문왕 (872)	…四十八景文王代戊子六月 第二霹靂 同代第三重修…
3차 중수	고려 현종 13년(1022)	…至本朝光宗即位五年癸丑十月 第三霹靂 現(顯)宗十三年辛酉 第四重成…
4차 중수	고려 문종 甲辰(1064)	…又靖宗二年乙亥 第四霹靂 又文宗甲辰年 第五重成…
5차 중수	고려 숙종 원년 丙子(1096)	…又憲(獻)宗末年乙亥 第五霹靂 肅宗丙子 第六重成…
소실	고려 고종 16년 戊戌(1238)	…又高宗十六年戊戌冬月 西山兵火 塔寺丈六殿宇皆災.

14) 남시진, 「감은사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 45.

15) 한정호, 「<황룡사찰주본기>와 불사리장엄 연구」, 『미술자료』77, 국립중앙박물관, 2008, pp. 33~34.

<표 1>에 제시된 다섯 차례의 황룡사 구층목탑 중수 가운데 늦어도 경문왕대에 이루어진 2차 중수 때까지는 방형대석이 심초석 위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皇龍寺刹柱本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중수 이후 경문왕의 명에 의해 납입된 <황룡사찰주본기>에는 872년 7월 황룡사 구층탑 중수가 이미 완료된 이후 목탑의 찰주를 들어서 사리장치를 확인하고 사리기를 추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¹⁶⁾ 만약에 2차 중수 이전에 심초석 위에 방형대석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심초석 사방에 배치된 四天柱와의 거리를 감안할 때 공간상 대석을 옮기거나 들어서 사리장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목탑지 방형대석이 설치된 시기는 2차 중수 이후인 고려시대로 범위가 축소된다. 그리고 방형대석의 규모나 무게를 감안할 때 대석을 심초석 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건에 준하는 대규모의 중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진행된 3차례 중수의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3차례의 중수는 모두 낙뢰에 따른 화재로 인해 중수된 것으로 기록된다. 그 가운데 고려 광종 5년(953)에 있었던 피해와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은 당시 황룡사 구층탑에 화재가 났을 때 연관사찰인 통도사 계단의 石鑊에 얼룩이 생겼다는 다소 신이한 내용이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화재의 피해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고려 광종대의 낙뢰로 인한 화재로 황룡사 구층탑이 전소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만약에 탑이 전소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화재 이후 현종 13년(1022)의 3차 중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60여 년간 황룡사는 탑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 것이 된다. 더구나 현종대의 중수와 관련하여 『高麗史』에는 “慶州 朝遊宮을 헐어 그 목재를 써서 수리하였다(撤慶州朝遊宮以其材修皇龍寺塔)”는 정도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중창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황룡사 구층탑 사리장엄구 가운데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고 보이는 유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역시 고려시대 구층탑 재건에 준하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해준다. 왜냐하면 최근에 밝혀진 불국사 삼층석탑을 위시하여 후대에 중수된 탑에서는 중수 당시의 사리장엄구가 추가로 봉안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¹⁸⁾

16) "... 明年七月九層畢功 雖然刹柱不動」上慮柱本舍利如何令臣伊干承」旨取壬辰年十一月六日率群僚而往」專令舉柱觀之礎曰之中有金銀高座 ..."(황수영, 「신라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 『금석유문』, 혜안출판사, 1999, p. 202.)

17) 『三國遺事』 권제3, 前後所藏舍利條, “...其皇龍寺塔災之日石鑊之東面始有大班至今猶然即大遼應曆三年癸丑歲也本朝光廟五戴也塔之第三災也...”

18) 한정호, 앞의 논문, 2008, p. 3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황룡사 구층목탑지 심초석 위에 방형대석이 설치된 것은 구층목탑 창건과 중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초석 위에 별도의 대석을 두고 찰주를 고정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목탑지에서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목탑지의 방형대석은 정방형이 아니라 동서 길이(약 170cm)가 남북 폭(약 117cm)에 비해 약 53cm 가량 넓은 장방형으로 목탑의 찰주를 떠받치는 구조로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초석 상면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복원된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의 직경이 약 147cm로 복원된 것과 비교할 때 목탑지의 방형대석은 규모면에서도 목탑의 찰주받침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방형대석이 목탑지 심초석 위에 설치된 시점은 仲和三年銘金銅舍利器를 포함한 다른 사찰의 사리장엄구가 황룡사 구층목탑 사리장엄구와 합치된 시기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도 2) 알려진 바와 같이 황룡사 구층목탑 사리장엄구는 1966년 12월에 도굴되었다가 2년 후에 회수되었다. 회수된 유물 중에는 황룡사 구층목탑과는 무관한 김유신을 위해 건립된 大石塔에 봉안했다는 명문이 있는 중화삼년명금동사리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굴로 인해 다른 석탑에 봉안되었던 유물과 뒤섞였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었다.¹⁹⁾ 그러나 최근 도굴 직후 사리공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과 회수된 유물의 대조를 통해 중화삼년명금동사리기를 비롯한 모든 유물이 도굴되기 전까지 황룡사 구층목탑 사리공에 납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²⁰⁾

중화삼년명금동사리기의 명문에는 普門寺의 玄如대덕이 883년 대석탑을 중수할 때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의거하여 77개의 소탑을 만들고 다라니 77벌을 서사하여 봉안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황룡사찰주본기>에도 구층목탑 중수에 참여한 승려로 普門寺 상좌 隱田이 등장하여 황룡사와 보문사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중화삼년명금동사리기가 황룡사 구층탑에 합치된 시점은 빨라도 883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별도의 사찰 석탑에 봉안되었던 사리장엄구가 황룡사 구층목탑 사리장엄구에 합치되는 상황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몽고전란 당시 사찰의 피해는 황룡사에 국한되지 않고 경주 일대의 여러 사찰에도 戰禍가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중화삼년명금동사리기가 황룡사 구층목탑 사리장엄구와 합치된 원인은 황룡사와 더불어 몽고의 전화를 겪었던 인근 사찰의 피해를 수습하면서 황룡사와 밀접한 관련을

19) 황수영, 「신라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본기와 그 사리구」, 『동양학』3집, 1973, p. 305.

20) 한정호, 앞의 논문, 2008, pp. 18~20.

맺었던 사찰의 사리장엄구들을 황룡사 구층목탑 사리공에 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목탑지 심초석 위에 놓인 방형대석 또한 합치된 사리장엄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황룡사 구층목탑지의 방형대석은 목탑의 창건 또는 중수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며, 고려 고종 16년(1238) 몽고의 전화로 인해 구층목탑이 전소된 이후 사리장치의 보호를 위해 설치한 鎮護石으로 볼 수 있다.

IV. 가섭불연좌석의 실체

현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정비된 황룡사지에서 가섭불연좌석으로 추정될 만한 석물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삼국유사』의 기록에 황룡사가 前佛時七處伽藍이 있던 장소 가운데 하나이고, 그 징표로 가섭불연좌석을 거론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섭불연좌석은 황룡사가 창건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석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일연이 묘사했던 높이 5~6尺, 둘레는 3肘가량 되는 석물로 황룡사가 창건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가섭불연좌석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먼저 가섭불연좌석의 실체를 규명하는 단서로서 중금당지의 장육삼존상대석과 목탑지의 심초석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황룡사 중금당지 중앙에 남아있는 3기의 대석은 장육삼존상을 받쳤던 대석이다. 대석의 최대 직경은 약 3m 정도의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대석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3기 모두 대동소이하다. 장육삼존상대석은 상면만 가공되었을 뿐 지표에 노출된 그 밖의 표면은 채석이나 治石에 의해 나타나는 인공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가공되지 않은 대석 측면의 질감은 자연풍화 된 바위와 동일하여 불상의 대석으로 가공되기 이전에는 오랜 세월동안 외부에 노출되었던 바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도 3)

최근 장육삼존상대석 가운데 본존상대석과 우협시상대석은 단면의 규모와 형태가 같고, 암석에 포함된 철성분이 산화되면서 표면에 나타난 붉은 무늬가 서로 일치하여 한 덩어리의 바위를 반으로 쪼개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불상대석은 노출된 대석 상면의 일부 가공된 부분을 감안하고 두 대석을 포개면 원래의 바위형태로 복원되는데, 복원된 석괴의 형태와 규모는 청동기시대 묘제인 지식묘 개석의 형태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현재 황룡사지에 남아있는 장육삼존상대석이나 목탑지 심초석과 같은 자연 석괴를 활용한 석조물은 사찰 창건 이전부터 일

대에 산재해 있던 청동기시대 지식묘의 개석이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²¹⁾ 이러한 추정은 발굴조사 당시 노출되었던 목탑지 심초석의 형태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도 4)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황룡사가 창건되기 이전의 황룡사 일대는 청동기시대 지식묘가 밀집된 지식묘군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증거로 황룡사 주변의 낭산 자락에는 지금도 지식묘로 추정되는 石塊들이 남아 있으며, 분황사와 황룡사지 사이 동편에도 2기의 지식묘가 남아 있다. 그 가운데 1기는 높이 170cm, 최장 300cm, 최대 폭 220cm의 대형 지식묘로 이러한 지식묘가 가공될 경우 목탑지의 심초석이나 금당지의 장육삼존상 대석의 형태와 유사할 것으로 짐작된다.(도 5) 그리고 지식묘의 개석 상부에는 직경 4~8cm의 크고 작은 성혈 20여개가 남아 있어 지식묘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도 6) 그리고 최근 분황사 제 8차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석관묘 3기가 발견되었다. 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세우거나 쌓아서 조성한 3기의 석관묘 가운데 1기의 석관묘 내부에서는 마제석창과 석축이 발견되어 석관묘가 청동기시대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7)²²⁾ 발굴보고서에서는 발견된 유구를 현재의 형태에 입각하여 석관묘로 해석하였지만 주변유적과 비교할 때, 이들 유구는 원래 지식묘의 하부구조로 상부에 놓여 있던 지식과 개석은 사찰 건립 당시 석재로 가공되면서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황룡사지 일대는 황룡사가 창건되기 이전 청동기시대 지식묘가 밀집된 지역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가섭불연좌석은 바로 이들 지식묘와 연계된 석물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삼국유사』에 묘사된 가섭불연좌석의 크기와 형태는 높이 약 150~180cm이고, 둘레 180cm 정도의 우뚝 솟은 돌기둥 형태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구조물은 선사시대 거석문화의 산물인 선돌(立石)의 형태와 일치한다.

지식묘와 더불어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하나라 알려진 선돌은 주로 평야나 계곡의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지식묘 부근에 건립되는 경우도 많다. 선돌의 기능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남근을 의미한다거나 지역의 경계나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는 표석이라 보기도 한다. 유적의 입지에 따라 무덤의 옆에 있는 묘표로서의 기능, 논이나 밭 등 경작지 가운데나 독에 위치하여 풍요기원의 기능, 마을의 입구나 그 주변에 자리하여 벽사나 수호의 기능, 경작지의 경계를 나타내

21) 한정호, 「황룡사 중금당지 불상대석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24, 미술사연구회, 2010, pp. 44~46.

22) 『年報』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p. 31.

는 기능 등으로 구분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요인에 의해 기능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다.²³⁾

선돌은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립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선사시대의 선돌 중에는 지석묘와 함께 건립된 사례가 많아 주목된다. 전남 담양지역에는 입석을 중심으로 지석묘가 원형을 이루며 배치된 사례도 있으며, 구례 금내리 입석을 비롯하여 순천 입석리, 석현리 등 남방식지석묘가 많이 분포하는 전남지역에 선돌의 분포가 많다는 사실은 선돌과 지석묘와의 관계를 보여준다.²⁴⁾ 그리고 충북 옥천군 석탄리 선돌과 청원 아득이 선돌, 제원 황석리 선돌 등은 발굴조사를 통해 인근에 위치한 지석묘와 동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다.²⁵⁾(도 8) 특히 최근 발굴조사된 대구 진천동 유적은 선돌을 중심으로 한 의례공간과 매장공간이 확인되어 선돌과 지석묘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선돌이 선사시대부터 의례를 목적으로 건립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황룡사가 창건되기 이전부터 聖地의 징표가 되었던 가섭불연좌석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인근 지석묘와 연계해서 건립되었던 선사시대의 선돌에 대한 묘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황룡사를 비롯한 신라의 칠처가람이 재래신앙의 신성지역에 불교사원이 건립된 것으로 보는 여러 선학들의 견해를 뒷받침 한다.²⁷⁾ 아울러 황룡사 가섭불연좌석이 청동기시대의 선돌이라면 황룡사에 앞서 창건된 흥륜사터에 사찰 창건 이전에 존재했다는 階礎와 石龕 역시 선사시대 거석문화와 관련된 지석묘 등의 구조

23) 신종환,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의 고령」, 『한국학연구원 학술총서』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p. 56; 하문식, 「경기지역 선돌유적과 그 성격」, 『고문화』7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8, pp. 38~39.

24) 김원룡, 「구례 금내리의 입석·지석묘」, 『고고미술』2-3, pp. 4~6.

25) 이용조, 「한국 선사문화에서의 선돌의 성격」, 『동방학지』46-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pp. 412~432.

26) 유지환, 「대구 진천천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2012, p. 40.

27) 이기백, 「삼국시대 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역사학보』6, 1986, p. 172; 김택규, 「신라상대의 토착신앙과 종교습합」,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pp. 213~214; 최광식, 「신라 상대 왕경의 제장」,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5, pp.70~74;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과 황룡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2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pp.59~60; 김복순, 「흥륜사와 칠처가람」, 『신라문화』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pp.51~56.

몰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선돌의 입지조건은 대부분 물줄기와 서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주로 큰 강줄기보다는 냇가이나 냇가의 언저리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⁸⁾ 이러한 선돌의 입지조건은 황룡사 일대가 원래 늪지였다는 발굴조사 결과와 맞물려 신라 왕경이 정비되기 이전 경주지역 지형지세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종교가 전래되는 시기에 기존의 신앙체계와 다름이 있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신라왕실과 재래신앙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귀족세력의 마찰은 하늘에 제사지내던 장소인 天鏡林에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를 건립하면서 벌어졌고, 급기야 이차돈의 순교로 이어졌다.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었지만 여전히 재래신앙의 성지에 사찰을 건립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마찰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진흥왕이 즉위한지 14년(553)이 되던 해에 용궁의 남쪽에 궁궐을 짓기 위해 터를 닦던 중 그곳에 황룡이 나타나서 이를 중단하고, 절로 바뀌서 황룡사를 건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진흥왕의 신궁건립계획이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찰로 변경되었다는 해석이 있다.²⁹⁾ 그러나 가섭불연좌석의 존재로 본다면 오히려 재래신앙의 성소에 사찰건립에 따른 귀족세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궁건설을 표방했을 가능성이 있다.

V. 맺 음 말

이상으로 『삼국유사』탑상편의 첫 장에 등장하는 迦葉佛宴坐石의 실체와 그동안 제기됐던 황룡사 건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먼저 가섭불연좌석이 위치했던 불전이 황룡사 동금당이라는 사실은 일탑삼금당식 가람에서 중금당지의 동서에 배치된 건물지가 불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동안 가섭불연좌석 또는 찰주반침으로 추정되던 목탑지의 방형대석은 『삼국유사』의 기록과 구층목탑 중수 기록 및 사리장엄구 분석을 통해 고려 고종 16년(1238) 몽고의 전화로 인해목탑이 전소된 이후 사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鎮護石으로 판단하였다.

28) 이용조, 앞의 논문, pp. 439~440; 하문식, 앞의 논문, pp. 41~42.

29) 최선자, 「신라 황룡사의 창건과 진흥왕의 왕권 강화」, 『한국고대사연구』72, 한국고대사학회, 2013.

최근 황룡사지 장육삼존상 대석과 목탑지 심초석이 지식묘를 가공하여 조성된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분황사 일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지식묘 하부 유구는 황룡사지 일대에 청동기시대 지식묘군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황룡사 불전 후면에 우뚝 솟아있었다고 기록된 가섭불연좌석의 크기와 형태는 청동기시대 지식묘와 연계하여 건립된 선돌에 대한 묘사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황룡사가 창건되기 이전부터 聖地의 징표가 되었던 가섭불연좌석의 실체는 바로 선돌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황룡사를 비롯한 신라의 칠처가람을 고대 신앙의 신성지역에 건립된 사찰로 보는 기존의 견해와 상통한다. 결론적으로 『삼국유사』 가섭불연좌석조의 기록은 선사시대 선돌과 관련된 최고의 기록이자 재래 신앙이 불교에 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재평가된다.



도1. 황룡사 목탑지 방형대석



도2. 중화3년명금동사리기, 통일신라, 883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3. 황룡사 중금당지 장육삼존상대석



도4. 황룡사지 목탑지 심초석



도5. 분황사 동방 지석묘, 청동기시대



도6. 분황사 동방 지석묘의 성형



도7. 분황사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석관묘 도8. 옥천 석탄리 선돌

[논문투고일 : 8월 6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8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11일]

[참고문헌]

1. 기본사료

- 『삼국사기』, 『삼국유사』

2. 단행본

- 小泉袈裟勝, 『單位の歴史辭典』, 柏書房, 1990.
- 『佛國寺誌』, 아세아문화사, 1983.
- 『年報』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 『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문화재관리국, 1984.

3. 논문류

- 김복순, 「홍륜사와 칠처가람」, 『신라문화』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 김원룡, 「구례 금내리의 입석·지석묘」, 『고고미술』2-3, 1961.
- 김택규, 「신라상대의 토착신앙과 종교습합」,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4.
- 남시진, 「감은사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신동하, 「신라 불국토사상과 황룡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2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1.
- 신종환,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의 고령」, 『한국학연구원 학술총서』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 양은경, 「황룡사지 동서 금당지와 강당지의 불상봉안 여부와 존상명」, 『신라사학보』23, 신라사학회, 2011.
- 유지환, 「대구 진천천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2012.
- 이강근,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12, 한국미술사학회, 1998.

- 이기백, 「삼국시대 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역사학보』6, 1986.
- 이용조, 「한국 선사문화에서의 선돌의 성격」, 『동방학지』46-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 장충식, 「삼국유사 탐상편 체재의 검토」, 『동악미술사학』2, 동악미술사학회, 2001.
- 조유전, 「皇龍寺 三金堂考」, 『석당논총』20, 1994.
- 최광식, 「신라 상대 왕경의 제장」,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5.
- 최선자, 「신라 황룡사의 창건과 진흥왕의 왕권 강화」, 『한국고대사연구』72, 한국고대사학회, 2013.
- 하문식, 「경기지역 선돌유적과 그 성격」, 『고문화』7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8.
- 한정호, 「<황룡사찰주본기>와 불사리장엄 연구」, 『미술자료』77, 국립중앙박물관, 2008.
- 한정호, 「황룡사 중금당지 불상대석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24, 미술사연구회, 2010.
- 한정호, 「황룡사의 제조명을 위한 試論」, 『겨레문화』11, 한국겨레문화연구원, 1997.
- 황수영, 「신라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본기와 그 사리구」, 『동양학』3집, 1973.
- 황수영, 「신라 황룡사의 가섭불연좌석」, 『불교와 미술』, 열화당, 1980.
- 황수영, 「신라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 『금석유문』, 혜안출판사, 1999.